‘K-환경기술’ 동남아서 통했다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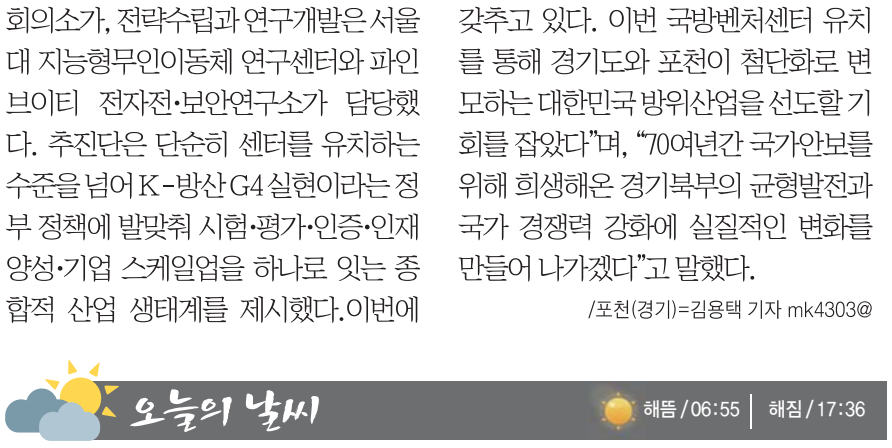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2025 경기도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 16개 사를 파견해 2,26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지난 21일 태국 방콕,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파견된 환경산업 통상촉진단에는 경기도 기업 16개 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81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태국 방콕에서는 총 85건 상담을 통해 1,07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고, 이 중 85건 512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83건의 상담을 통해 1,189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이 중 81건 583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이 수처리 설비, 폐기물 자원화 기술,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친환경 플라스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총 7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육군승진훈련장 테스트베드. /포천시

포천시,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첨단 방위산업 중심 도시 도약

포천시가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를 확정하면서 ‘첨단국방산업의 거점도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포천시는 지난 9월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위해 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해 역량을 결집했다.

추진단 단장은 포천시장과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기술지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포천상공회의소가, 전략수립과 연구개발은 서울대 지능형무인이동체 연구센터와 파인브이티 전자전·보안연구소가 담당했다. 추진단은 단순히 센터를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K-방산 G4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시험·평가·인증·인재양성·기업 스케일업을 하나로 잇는 종합적 산업 생태계를 제시했다. 이번에 유치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2026년 3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거점으로 설치된다.

포천시는 이를 중심으로 AI 기반 민군 드론운용성시험평가센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드론교육훈련센터를 함께 추진해 설계·개발·시험평가·인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완결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번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통해 경기도와 포천이 첨단화로 변모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할 기회를 잡았다”며,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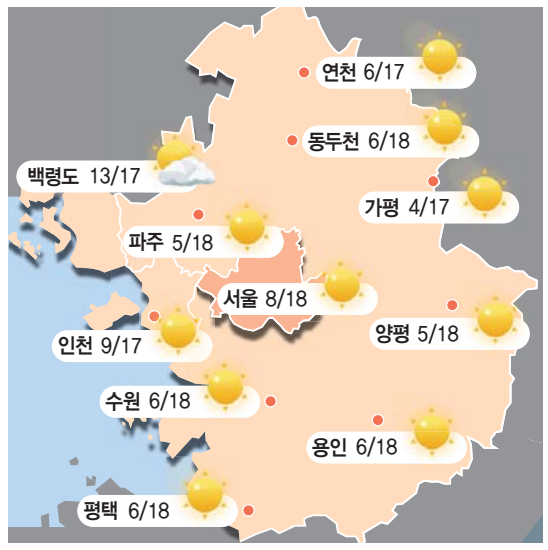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5 | 해짐 / 17:36

10월
30일(木)
음력 : 9월 10일

수도권 날씨
8~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문은 간판, 자연은 전공·진로 달라진 선택 기준 ‘입시 온도차’

진학사, 수시 지원자 대상 설문조사
인문, 이름값·사회적 평가 강조
대학 간판이 선택 기준으로 작용

자연, 전공 적합성·진로전망 고려
실용 가치 중심으로 방향 전환

2026 수시, 정시 대학 선택전략 특집설명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강남종로학원 대치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인문계열 수험생은 대학의 ‘이름값’을, 자연계열 수험생은 ‘전공 적합성’과 ‘졸업 후 진로 전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평가 중심의 인문계와 실용적 진로 중심의 자연계가 확연히 다른 지원 기준을 보인 셈이다.

29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학·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복수 응답)로 ▲‘학과·전공의 적합성’(60.6%)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대학 네임밸류’(46.9%) ▲‘취업률 및 졸업 후 진로 전망’(36.2%)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자연계열보다 대학의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문계열의 51.6%가 대학의 네임밸류를 중요하게 꼽은 반면, 자연계열은 43.4%에 그쳤다.

반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공의 적합성과 졸업 후 진로 전망을 더 중시했다.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본 비율은 자연계열이 62.8%로 인문계열의 58.1%보다 높았고, 졸업 후 진로 전망 역시 자연계열이 39.4%로 인문계열(32.4%)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인문계는 사회적 평가와 직결되는 ‘브랜드 가치’를, 자연계는 전공의 전문성과 진로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실용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며 “이 같은 차이는 향후 정시 지원에서 학과별 경쟁률과 교차지원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단순히 유명 대학을 목표로 하기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학사는 향후 ‘AI 활용’, ‘정보 격차’, ‘사교육 의존도’, ‘성적대별 지원 전략’ 등을 추가 분석해 ‘2026 수시 지원 인사이트 리포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년 새 ‘외국인 전담학과’ 3배↑

수도권 대학 절반 이상 집중
언어능력 충족률 40% 그쳐
교육 질 저하·신뢰도 우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가 2년 새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집중과 유학생의 언어능력 미흡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소재)이 운영하는 학과는 139개(41.5%)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 제도를 학사 유연화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실제 2024학년도 외국인 전담학과는 107개였으나 2025학년도 238개, 2026학년도 335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43개(2024년)에서 115개(2026년)로 늘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2024) ▲40.1%(2025) ▲41.5%(2026)로 유지되며 집중 양상이 지속됐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생은 총 4518명이며, 이 중 수도권 입학생이 2235명(49.5%)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유학생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은 전국 평균 42.1%, 수도권 대학은 39.1%로 더 낮았다.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에 비해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언어 역량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고려대, 이화여대 등 11개 대학이 16개 외국인 전담학과를 운영 중이며, 해당 학과 입학생 886명 가운데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476명(5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AI와 예술’의 만남 미래형 청사진 제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예술이 일상이 되는 학교’를 비전으로 하는 ‘2026~2030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AI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미래역량 기반 예술교육 강화 ▲학생 정서회복 지원 ▲지역 예술생태계 확산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으며,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학교급별 특성화된 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서울형 창의융합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기반 예술학습 지원 체계를 개발해 학생 맞춤형 실습과 피드백이 가능한 ‘예술형 AI 튜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 학습을 통해 창의적 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美 CSIS 보고서 “지난달 韓-中 해경과 조사선, 서해 15시간 대치·추격”
▲美日, 정상회담 이어 국방회담… 日방위비 증액 등 논의 /사진 뉴시스

▲빌 게이츠 “기후 위기보다 말라리아 퇴치가 시급… UN, 전략 전환해야”
▲日다카이치, ‘아베’ 내세워 트럼프와 밀착… “무난한 미일 외교 데뷔 완수”

▲하마스, 인질 시신 2구 추가 수습 주장… “당장 인계는 안 해”
▲연준, 셧다운 속 금리 인하하나… “인플레 불장난” 우려